

# IS 전 세계 테러 선동 ‘공포의 라마단’

<6월 6일 ~ 7월 5일>

## ■ 올해 라마단 기간 테러 일지

6.12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나이트 클럽 총격 사건으로 50명 숨지고 53명 부상.
6.28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 공항서 자살폭탄 테러 36명 사망, 147명 부상.
7.1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외국공관 밀집지역 음식점에서 인질극, 외국인 20명 살해.
7.3	이라크 바그다드 상업 지구서 자살 폭탄 테러 최소 115명 사망, 187명 부상.

(6.28~7.3 기간 테러는 IS 소행 추정)

## 전 세계 지지자에 선동 메시지

### “라마단 순교 뎀 더 많은 보상”

### 가족 방문 시기가 피해 더 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라마단을 테러 기회로 악용했다. 라마단은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로, 절제된 생활 속에 불우이웃을 돌아본다는 정신에 비취볼 때 이슬람국가 건설을 기치로 내건 IS의 테러 선동은 이율배반적이다. 뉴욕타임스는 IS의 선동가들이 라마단 시작 이전인 지난 5월 말에 라마단 기간에 테러할 것을 부추겼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부 무하메드 IS 대변인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오디오 메시지를 통해 “라마단 기간에 서구에서 테러를 하자”고 선동했다. 그는 “지하디스트들이 행동해야 한다. 라마단 기간에 순교하면 더 많은 보상을



3일(현지시간) 새벽 대형 테러가 발생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중심 카라다의 사건 현장에서 이날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이번 테러 희생자는 현재까지 최소 143명으로,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악의 사태로 기록됐다. /연합뉴스

받을 것”이라며 부추겼다. 다른 극단주의자는 독약을 이용하는 매 뉴얼을 배포하면서 “라마단이 가까워져 온다. 승리의 달이다”는 문구도 나눠줬다. 지난달 6일 라마단이 시작된 이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49명의 목숨을 앗아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41명을 죽인 터키 이스탄불 공항 폭탄 테러, 최소 22명을 살해한 방글라데시 다카의 식당 인질 테러, 그리고 최소 120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라크 바그다드의 자살폭탄 테러에 이

르기까지 세계 도처에서 참극이 발생하고 있다. 이 테러 중 많은 경우에는 IS나 IS 연계 세력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처했다. 아직 배후가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테러의 경우에도 IS의 소행이거나 IS가 부추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부분의 무슬림에게 라마단에 벌어지는 폭력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라마단은 무슬림이 정신세계를 새롭게 동시에 친구 또는 가족을 방문하는 시기이다. 또 라마단에 선행하면 다른 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IS는 이런 일반적인 믿음을 왜곡해 테러를 조장하는 데 이용했다. 즉 신앙심이 없는 사람을 라마단 기간에 살해하면 더 좋다고 선동해 테러를 자극했다. 테러로 희생된 사람 중에는 무슬림이 많다. 이는 IS가 이슬람의 수호자라고 자칭하는 것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지하드(성전) 전문가인 파와즈 게르게스 런던경제대 교수는 “알카에다와 연계 세력들, 그리고 IS가 라마단을 분수령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행동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브렉시트 반대 청년에 유럽 시민권 줘야”

### 독일, 이중 국적 완화 검토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반대한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유럽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 장관이 말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 독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가브리엘 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민주당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 사는 젊은 영국인들에게 이런 이중 국적의 혜택을 주자”고 말했다.

가브리엘 장관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지지한 층은 주로 나이 든 유권자들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국 젊은이들이 EU 시민

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독일 법률에서는 독일 국적을 신청하려면 옛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가브리엘 장관은 브렉시트로 결정된 영국의 국민투표는 독일의 이중 국적 규정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며 “영국이 연령별로 태도가 다른 만큼 이중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사례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브리엘 장관은 “그 때문에 우리는 (선박이 통행하도록 상관을 들어 올리는) 도개교를 끌어올려선 안 된다”면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사회 진보의 기회가 가장 많은 곳이 유럽”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지난달 국민투표에서는 젊은층의 70% 이상이 EU 잔류를 지지했다. /연합뉴스

## 트럼프, 이번엔 유대인 비하 SNS 논란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반(反) 유대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트윗을 올렸다가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삭제했다.

3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주 자신의 트위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선거 사상 가장 부패한 후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클린턴의 얼굴과 유대인의 상징인 ‘다윗의 별’을 연상시키는 육각별, 돈다발이 들어간 그래픽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트럼프는 논란이 일자 일주일여 만인 지난 2일 일본 트윗을 삭제하고, 육각별을 원으로 대체한 그래픽과 글을 다시 게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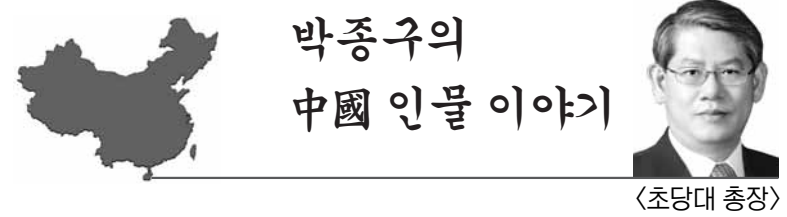
CNN은 애초 육각별을 사용한 결정의 배경과 흑시 반유대인 정서를 불러일으



유대인 비하 논란을 일으킨 트럼프 트위터. 길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한 것인지 몰았으나, 트럼프 캠프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원본 트윗은 삭제했지만 무슬림 입국 금지와 멕시코 국경 봉쇄 등 지속된 인종차별적 발언 탓에 트럼프를 향한 공세가 그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가 사용한 이미지는 이미 백인우월주의자 웹사이트에 등장한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 후한말 무장 여포

여포(呂布, ?~198)는 후한말의 무장으로 자는 봉선이며 현재의 내몽고 자치구에 해당하는 오원군 구원현 출신이다. 욕심이 많아 쉽게 유혹에 넘어가 무장으로서의 일생을 그르쳤다.

그는 무용이 뛰어나 일찍이 병주자사 정원 휘하에서 주부로 봉사했다. 영제가 죽고 소제가 즉위한 후 대장군 하진은 권력을 농단한 환관 주살 계획을 세웠다. 정원은 집금오로 부름을 받아 수도 낙양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는데 그가 경호대장으로 수행했다. 하진이 환관에게 암살당하고 원소 등이 환관을 주살해 어수선한 사이에 동탁이 권력을 장악했다.

동탁은 여포를 꾀어 정원을 살해하도록 하였다. 그는 정원을 죽인 공로로 기도위에 임명되고 동탁과 여포는 부자의 서약을 맺었다.

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황을 사르는 것입니다.” 나관중의 뛰어난 상상력으로 인해 그녀는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여성이 되어 무수한 남성의 심금을 울렸다. 여포와 초선의 비극적 사랑은 2000년대 초 중국에서 35부작으로 제작되어 인기리에 방영된 바 있다.

동탁 사후 관사, 이각 등의 세력에 쫓겨 무관으로 퇴각했다. 그 뒤 하북의 실력자 원소에게 몸을 의탁했다. 원소와 함께 장연의 세력을 격파했으나 휘하의 장수들이 약탈을 일삼자 원소는 그를 기피해 결국 원소 진영을 떠나 하남의 장양과 합세했다. 193년 조조가 서주의 도겸을 공격하자 조조의 근거지인 연주를 빼앗아 연주목이 되었다. 동탁은 여포를 꾀어 정원을 살해하도록 하였다. 그는 정원을 죽인 공로로 기도위에 임명되고 동탁과 여포는 부자의 서약을 맺었다. 유비는 부득이

## 밥 먹듯 배신으로 맹장 일생 그르쳐

그는 중랑장으로 승진하고 도정후에 봉해졌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동탁은 그를 경호대장으로 삼아 호위를 받았다. 동탁은 고집이 세고 편벽되어 성이 차지 않으면 조그만 일에도 여포에게 창을 던졌다. 이런 일로 인해 마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깊어졌다.

사도 왕윤은 소제를 폐하고 황후를 유폐시키는 등 전횡을 일삼는 동탁을 제거하기 위해 미인계를 쓰기로 결심했다. 재주와 미모가 뛰어난 수양딸 초선을 동탁의 애첩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왕윤의 뜻에 따라 동탁과 여포를 이간질시킬 목적으로 여포에게도 추애를 던졌다. 그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192년 왕윤과 사촌사의 부추김을 받고 그는 동탁을 살해했다.

소설 삼국지연의의 저자 나관중은 초선이란 가공의 인물을 등장시켜 사람에 빠진 여포가 동탁을 배신해 죽인다는 러브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초선은 서시, 양귀비, 왕소군과 함께 중국의 4대 미인으로 꼽히는데 자신을 희생해 기울어가는 한나라 사직을 구하는 여인으로 승화되었다. 원대의 삼국지 관련 저작에는 다음과 같이 그녀의 경력에 묘사되어 있다. “친정은 원래 임씨 성을 가졌고, 어릴 때의 자는 초선이며, 남편은 여포라 합니다. 임조 부에 있을 때부터 서로 헤어져 지금까지

조조 진영에 몸을 담았다. 이후에도 원술과 손을 잡았다가 배신하고 조조에게 가담하는 등 배신을 밥먹듯했다. 198년 조조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서주를 공격해 하비성에서 여포를 포위했다. 농성하지 3개월만에 조조에게 사로잡혀 처형되었다.

조조에게 사로잡힌 여포는 너무 세게 포박을 했으니 조금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조는 “큰 호랑이를 잡았으니 부득이 꼭 조여야 한다”고 응대했다고 한다. 그는 용서를 해주면 조조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간청했다. 인제 사람이 깊은 조조는 마음이 흔들려 옆에 있는 유비에게 물었다. 유비는 “여포가 정원과 동탁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지 않았습니까?”라고 응대했다. 그는 유비에게 손가락질하며 울부짖었다. “이놈은 가장 믿지 못할 놈이로구나.” 결국 여포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당대의 맹장이었다. 이에 따라 사람 가운데는 여포, 말 가운데는 적토마(中呂布, 馬中赤兔)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었다.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여포열전에서 그를 용맹하나 미련하고 하찮은 것에 매달린 소인배로 혹평했다. 그의 삶은 무용은 있었으나 소신없이 이익에 눈멀어 배신을 되풀이한 인간의 슬픈 말로를 잘 보여준다.

## 신축 4층 상가원룸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신축 상가원룸 / 3면 대리석 시공 / 코너자리

1층 (커피숍)  
2층~3층 (원룸 6개, 투룸2개)  
4층 (주택) 30평  
화장실2개, 방3개, 다용도실

★ 4층(주택) 거주 하면서  
월수익 35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1억5천)

010-6670-9800 010-7384-7800

## 평택 토지 (토지, 개발전문)

★ 삼성전자 120평 ★  
평택 신도시 530만평

평택항 현덕지구 70만평(여의도크기) 미군기지 이전

①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고덕치로 7분) 120평 (평당 200만)  
▶ 매가 2억4천만

②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포승공단 옆) 922평 (평당 30만원)  
▶ 매가 2억7천600만

③ 평택시 포승읍 내거리 (포승공단 5분) 492평 (평당 30만원)  
▶ 매가 1억4천7백60만

④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고덕 신도시 10분 613평 (평당 95만)  
▶ 매가 5억8천235만

⑤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고덕 신도시 5분) 233평 (평당 35만)  
▶ 매가 7억8천만

평택 토지 전문 010-6832-9700 / 062-511-7800